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오늘 예배는 니콰라과 선교팀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 선교지 후원

*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기증해 주세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중고 휴대폰)을 기증받습니다. 기증해 주신 휴대폰은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과 현지 사역자들의 소통을 위해 귀하게 사용됩니다.

1. 기증 가능 : 정상 작동하는 스마트폰

2. 기증 기간 : 8월 2일(주일) 까지

3. 제출 장소 : 교회 사무실 또는 안내데스크

작은 나눔이 선교지에서는 큰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캐주얼 시즌 (7~10월) 복장 안내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복장을 유연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 [여름철 친교(주일 1부 및 주일 2부) 사역 안내]

여름철인 7~8월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행 및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 준비와 봉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일 친교(주일 1부 및 2부) 사역을 잠시 쉬고자 합니다.

대신 예배 후에는 가족과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이어가시며 지역 식당과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응원하고 함께 상생하는 뜻 깊은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친교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는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9월부터는 다시 즐거운 친교의 자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목회후원 사역팀 -

• [장례소식]

우리 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섬기셨던 양재성 목사님께서 지난 6월 29일 (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헌금 통계

일반헌금	\$19,308.00	십일조: \$7,965.00 감사: \$395.00	월삭예배: \$1,570.00 주일: \$1,832.00 기타: \$7,546.00
지정헌금	\$3,120.00	목장선교: \$120.00 건 축: \$500.00	개인선교: \$2,50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5권 28호
2026년 7월 12일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성령강림후 일곱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428장(통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기도 Prayer / 이운섭 장로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내 영혼아 주 함께 계시니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엡(Eph) 2:10.....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호흡있는 모든 만물,

주 안에서 기뻐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기도 Prayer / 김미라 권사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내 영혼아 주 함께 계시니 -

< 성령의 열매 (5)- 자비 >

Fruit of the Holy Spirit (5)- Mercy

▲ 파송찬송 Closing Hymn/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7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7월 12일	1부	열매목장	담당자	이운섭장로	
	2부			김미라권사	
다음주 7월 19일	1부	열매목장	담당자	박인숙장로	
	2부			이혜영권사	

설교요약

1. 성경이 말하는 ‘자비’의 참된 의미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비’라는 단어는 흔히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정도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의미를 지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χρηστότης)’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뜻합니다.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먼저 다가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와 헬레니즘 사회에도 베푸는 문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유층의 자선은 정치적 지지나 사회적 명예, 동상 건립 등 철저히 상호 교환적이고 대가를 바라는 목적을 띠고 있었습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롬 3:23~24, 엡 2:4~6)

2.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 같은 은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자비하심을 받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가 우리 안에만 고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비하심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최근 니카라과 단기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자비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교회의 헌신으로 방과 후 학교와 축구장이 세워졌고, 가난의 대물림 속에 있던 아이들이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꿈을 꾸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 건강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로소 밝혀지게 됩니다. (마 5:16)

3. 선을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눅 6:36)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비는 결코 마음의 연민에서 멈추지 않았고 항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콤파스로 원을 그리듯 '나만의 선'을 굶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선을 넘으면 "선 넘지 마!"라며 즉시 판단 모드로 돌입해 관계를 끊거나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어 놓은 그 선 밖으로 직접 넘어가 일하셨고, 선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결을 내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눅 10장)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지식은 있었으나 편견이라는 선을 넘지 못해 결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선을 넘어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자비는 "불쌍하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손과 발로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설교 요약>

4.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입혀주시는 ‘자비의 옷’

골로새서 3장 12절은 "금홍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자비의 옷은 내 결심이나 나의 넓은 성품으로 스스로 지어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내 삶을 덮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한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비는 내 결심이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미련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외면하던 사람을 품게 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한 줄, 누군가를 위한 짧은 기도, 따뜻한 식사 한 끼와 관심 어린 눈빛 하나가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곁을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가갈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부부 사이, 자녀와 손주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 위에 ‘주의 자비가 봄비 같이, 소낙비 같이’ 충만하게 덮이기를 축원합니다.

■ < 나눔 질문 >

- 1)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씀이나 내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도 함께 나누어 보세요
- 2)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눅 6:36)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과 실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닮아가기 위해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3)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다가갔습니다. 오늘날 내 삶의 자리에서 ‘다가가야 할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가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4) 하나님의 자비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